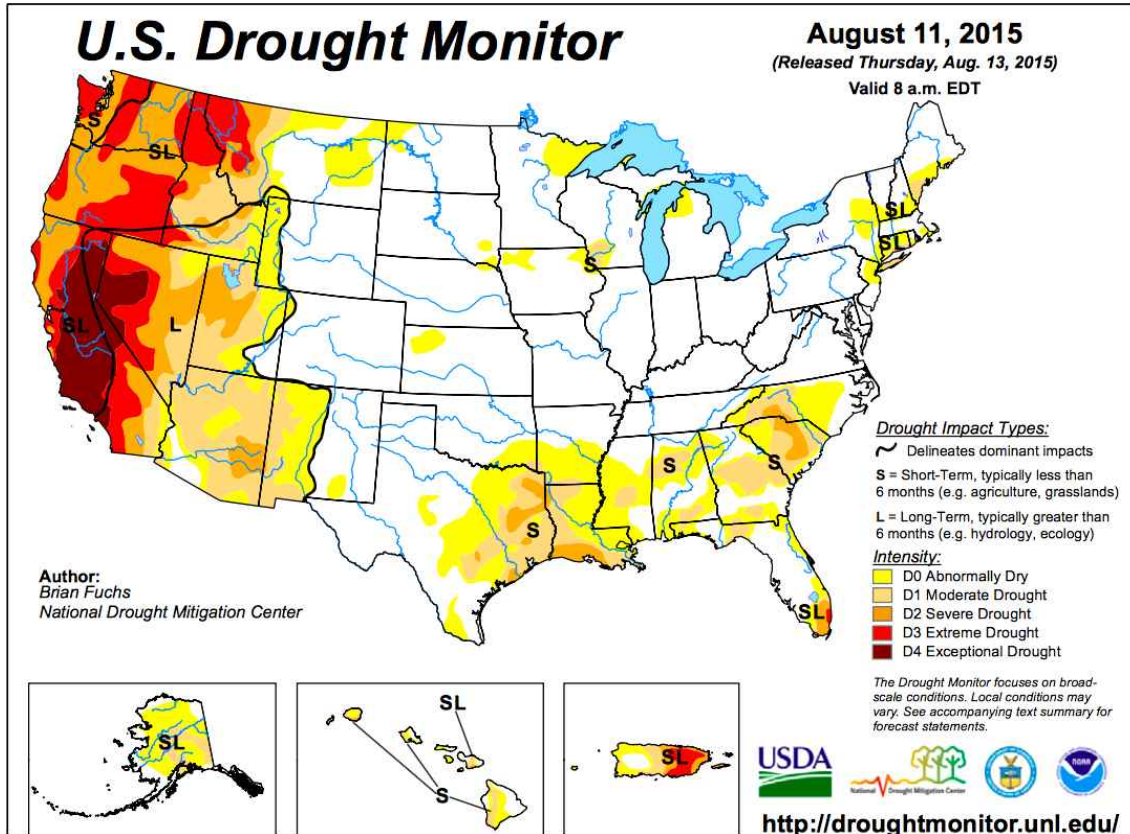


8월 18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2, No. 33)

□ 미국 기후 현황(8/9~8/15)



동부의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시원한 비가 내려 목초지와 농지를 축축이 적셨다. 플로리다 반도에서도 2~4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 중부에서도 비가 내렸지만, 이로 인한 농작업 지연은 없었다. 북부 평원지역은 더운 날씨가 이어져 봄밀 수확작업을 앞당겼다. 몬타나와 노스 다코타에서는 평균보다 5°F 이상 높은 기온이 이어졌으며, 북부 고원지대 일부에서도 낮 최고기온이 100°F 이상 미시시피 계곡 저지대와 남서부 사막 일대에서도 더운 날씨가 이어졌으며, 걸프 연안 서부지역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기는 했지만 더운 날씨가 이어졌다. 중서부지방과 옥수수 지대 아래에서는 선선한 날씨가 유지되었는데, 중서부의 경우 낮 최고기온이 90°F 미만에 머물렀다. 아리조나와 로키산맥 남부에서는 계절적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 내륙산간의 서부 지역과 태평양 북서부 일대에서는 맑은 날이 이어졌으며, 캘리포니아 북부와 북서부에서는 벼락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다.

□ 농업 현황 요약(8/10~8/16)

시에라 네바다와 캔사스, 오클라호마 동부, 대서양 연안의 중부 일대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평년보다 2°F 이상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졌다. 또한, 최근 이어지고 있는 건조한 날씨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주에서 평년보다 적은 양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는데, 플로리다와 미시간, 미주리 남부, 펜실베이니아에서만 평년보다 1.5인치 정도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옥수수 지대 북부와 서부 일대에서는 평년보다 1.5인치 정도 적은 강우량을 기록했다.

■ 옥수수

전국적으로 호숙기(dough stage)에 도달한 재배지 비율은 71%이며, 작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는 3%p.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는 5%p 앞선 상황이다. 8월 16일 기준으로, 황숙기(denting stage)에 도달한 지역의 비율은 21%이며, 이는 작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는 약간 앞서고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는 7%p 뒤쳐진 상황이다. 콜로라도, 미네소타, 펜실베이니아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주요 옥수수 재배지에서 황숙기에 도달하는 정도가 늦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가 생육상황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며, 작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 수준이다.

■ 면화

8월 16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면화 송이가 형성된 비율은 73%로 이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서는 4%p,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는 15%p 뒤쳐진 상황이다. 전국적으로는 면화송이가 벌어진 비율이 10%인 것으로 나타났고,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약간 늦은 상황이며, 직전 5개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2%p 늦은 편이다. 텍사스에 경우 면화의 성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에드워드 대평원 일대에서도 면화송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연안의 일부 재배지와 저지대 계곡 일대에서는 수확 작업이 시작되었다. 재배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55%가 매우 좋은 생육상황을 보인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5%p 높은 수준이다.

■ 쌀

8월 16일 기준 전국 출수율은 88% 수준이며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 2%p,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는 6%p 앞선 상황이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주말까지 13%의 수확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7%p 앞서고, 직전 5개년 평균에 비해서도 3%p 앞선 상황이다. 알칸사스의 일부 재배지에서는 벼의 수확을 위한 물빼기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배수작업과 함께 수확작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응답자의 68%가 생육상황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보다 1%p 감소한 수준이며 작년 동기에 비해서도 6%p 뒤쳐진 수준이다.



□ 세계 기후 현황(8/9~8/15)

■ 유럽: 서부와 남부 일대에서는 많은 비가 내렸고, 이와 대조적으로 동부의 곡창지대에서는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다. 느리게 움직이는 저기압의 경향으로 프랑스와 독일 전역에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고 5~40mm 이사의 비가 내렸다. 이번 비로는 겨울밀과 유채 파종시기에 매우 적절하게 내린 것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지중해의 영향으로 20~80mm의 비가 내렸는데, 강한 햇빛에 의해 시들어가던 옥수수 피해를 예방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지만, 토양에 상당한 양의 수분을 공급해 주었다. 하지만, 이탈리아 동부의 포 강 일대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5~37°C 이상 오르는 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다. 영국에서는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다. 독일 동부와 폴란드 남부 등 유럽 동부에서는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3~9°C 이상 높은 기온이 유지되고 있다. 다뉴브 강 일대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8°C 까지 올랐다. 폴란드와 발칸반도 일대에서는 8월 후반부터 9월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 유채 파종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 일대에서는 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 구소련(서부): 남부에서는 지난 한주간 낮 최고기온이 35~38°C까지 올랐지만, 높은 기온에 의한 피해를 입을 단계를 지난 덕분에 옥수수 재배지에서 이로 인한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남부지역보다 옥수수 파종 시기가 늦은 우크라이나에서는 지난주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35°C 이상 오른 날이 3일 이상이었으며, 옥수수에 수염이 형성되는 시기와 겹쳤다. 하지만, 옥수수 재배지 대부분에서는 이로 인한 피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옥수수 생산량 전망은 긍정적인 상황이다. 몰도바에서는 강우량 부족과 평년보다 높은 기온 때문에 여름작물 수확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 동아시아: 중국 북동부와 북부 평원에서는 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다. Jilin, Liaoning과 내몽고 등 북동부에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Liaoning과 내몽고 등에서는 이번 가뭄이 찾아오기 직전에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린 탓에 옥수수의 생육상황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만, Jilin에서는 지난 6주간 강우량이 75mm를 기록했고, 평균적인 강우량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이다. Heilongjiang에서는 25~50mm의 비가 내려 대두 등의 작물에 수분을 공급해 주었지만, 서부지역 전체적으로는 지난 7월 1일 이후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북동부 옥수수 재배지 일대의 평균기온은 20°C을 상회했는데, 평년보다는 1~2°C 높은 상황이다. 북동부 일대 옥수수 재배지의 전반적인 생육상황은 나쁨수준이며, 작년 수준 또는 그보다 수확량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북부 평원에서는 Henan과 Shangdong의 일부 지역에서만 비가 왔다. 이들 지역의 작물의 생육상황은 현재는 좋은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당분간은 가뭄이 예상되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 남부에서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지역에 따라서는 200mm 이상 비가 내린 곳도 있었다. 한반도 일대는 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며, 일본은 가끔 소나기가 내리는 등 벼 재배지 일대에 적정량의 수분이 공급되었다.

■ 호주: 서호주 일대에서는 앞선 2주간 많은 비가 내린 이후 건조한 날씨가 유지되고 있다. 앞서 내린 많은 비 덕분에 현재 건조한 날씨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호주에서는 5~25mm의 비가 내려 밀, 보리, 캐놀라 등은 생육상황이 좋은 편이다. 빅토리아 북부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유지되고 있는데 비가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 사우스 웨일즈 남부에서는 5~20mm의 비가 내렸고겨울 작물과 유지 작물의 수확량 전망은 밝은 상황이다. 반면,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와 퀸즐랜드 남부에서는 3주째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밀의 경우, 파종 시기에는 이번 해 생산량 전망이 밝았지만, 현재의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경우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밀 재배지 일대의 기온은 전반적으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아르헨티나: 동부 일대에는 많은 비가 내렸다. Santa Fe, Buenos Aires 남부에서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고, 저지대에서는 일부 지역이 침수되기도 했다. Entre Rio 동부와 우루과이 일대에서도 많은 비가 내렸다. Cordoba 북부와 Salta 등 서부 곡창지대에서는 시기적절한 비가 내렸고, La Pampa와 Buenos Aires 주변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유지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려 Buenos Aires에서는 밀 파종작업이 지연되었고, Cordoba와 Santiago del Estero에서는 면화 수확작업이 지연되었다. 서부 곡창지대에서는 지난 한주간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유지했고, 남부의 곡창지대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20°C 수준으로 많이 낮아졌다. Buenos Aires 동부와 Formosa 동부에서는 평균보다 2~3°C 정도 높은 날이 많았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8월 13일 기준 옥수수의 수확률은 95%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89%보다 6%p 앞선 상황이다.

■ 브라질: 대부분의 지역에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져 밀과 옥수수, 북부지역의 경우 면화의 생장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Rio Grande do sul 남부와 북동부 해안지대에서는 10~50mm의 비가 내렸고, 이와 달리 그밖의 주요 곡창지대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Matto Grosso do sul, Rio grande do sul 등 남부와 서부에서는 지난한주간 평년보다 2~6°C 이상 높은 날이 많았고, 이 덕분에 옥수수와 밀의 성장이 촉진되었고 사탕수수와 커피 수확작업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Goias에서부터 북동부 해안지역은 평년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서양 연안과 Mato Grosso, 북동부 내륙의 Tocantins, Maranhao, Piaui 등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 이상 올랐다.

